미국언론동향

한국, 북한과의 협상 노력에 박차를 가함

- Wall Street Journal -

한국정부는 다른 공약들이 백악관의 대선전 중점 과제들로 선정되기 전에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좀더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는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고위 정부당국자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오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부시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좀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장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경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정동영 장관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 보좌관과 만날 예정이다.

"일부 비판가들은 한국의 포용정책이 북핵문제 해결에서의 미국의 강경 입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포용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정 장관은 말했다.

한국은 대북 화해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북·미간 긴장고조로 인한 자국 경제의 침체를 막고자 하고 있다. 정 장관의 이번 방미는 미국이 좀 더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정 장관은 취임 후 가진 첫 인터뷰에서 "우리가 뒤로 미루면 상황이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실기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9월말 이전에 차기 6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9월말 이전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6월에 남북한, 미·일·중·러는 다음달 말 이전에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련의 북한 성명들을 보면 북한의 회의참석 여부는 회의적이다.

북한은 어제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회담 재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협상에 응하기 위해 지연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또한 대선 이전에 서둘러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 이라고 본다. 2002년 10

제가 불거진 지 거의 2년이 지났지만 미국 내에서 북핵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한편 한국은 북한과의 경협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이면에는 한국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다. 북한의 점진적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을 돕는 소위 "연착륙"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은 한반도 통일시 발생할 정치·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힌다.

"포용정책은 감정적인 이유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갑작스런 붕괴는 이 지역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리의 공통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 장관은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이 포용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해야만 대규모 추가 대북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인들은 남북경협을 자국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한국 제조업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많은 한국기업들은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통일부 뉴스 2004. 9. 3>